

연중 33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7면 (C해)

제1독서: 말라 3, 19-20a
 제2독서: II 메살 3, 7-12
 복음: 루가 21, 5-19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루가 21, 17-18).

▶ 감 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채 수 현

경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열아홉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주일을 특별히 평신도의 날로 정한 것은 평신도인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절감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모두가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현장에서는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과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였고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는 가정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모두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성화하도록 현재 질서의 복음화에 대한 평신도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세대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악의에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급한 처량에 물려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평신도 특히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막중합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주께서 친히 성세와 건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 사도직에 부르십니다. 평신도의 특수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각 평신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도구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빛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세속에 대하여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기 뜻을 따라 영성적 열매를 맺음으로써 육신 안에서 영혼의 역할을 세속 안에서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자신이 향유하는 지식과 능력과 자력에 따라 교회의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교계제도를 통해서 솔직하고 대담하고 지혜롭게 의견을 밝힐 것이며,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성직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주교경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현대에 있어 사회를 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은 성당을 많이 짓거나 교회학교를 많이 세우거나 신학생을 많이 모집하는 것보다도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본당에 덕행있고 교리에 밝고 의지가 굳고 동시에 사도적 열성을 갖춘 평신도의 무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면서 평신도들이 말과 활동과 특히 표양으로써 행하는 사도직에 자기를 바치도록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상을 꼭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평협 부회장)



햇님과 바람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가장 어려운 때라던 제4공화국 시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헌법학자는 유신헌법의 등장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그 헌법에는 ‘개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헌법 질서에 따른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라 새 헌법의 ‘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 4 공화국에서는 예방적 긴급조치의 남발로 국민의 강한 저항의식에 봉착하고 있었다.”

좌경·용공·공산혁명분자 등의 앞질한 표현으로 어지러운 요즘, 어느 신문의 정치부 기자들은 좌담에서 제4공화국을 회고하며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과거 유신시대를 되돌아 보면, 헌법의 부분기능 정치효력까지 가지는 긴급조치가 9차례나 거듭됐지만, 결국 통치권자의 목적인 바가 고스란히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긴급조치가 나올 때마다 한동안은 그 조치의 대상이 위축되고 잠복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런 효력은 대개 몇 개월로 끝나고 오히려 그에 대한 내성이랄까 번역성만 커져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위의 두 이야기가 요즘의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1항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민통련의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에도 예방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한국 천주교 정경위 이론명 회장과 목사 등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이단 구속사태와 민통련 등 재야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햇님과 바람>에 대한 우화를 생각한다. 강한 바람만으로는 사람의 웃을 벗길 수는 없다.

순정이 산책



모여서 기도하자!



교 구 소 식

- * **축! 청년대회 "자, 일어나 가자"**(요 14:31), 23일, 장소-해성학교
- 1. **교구 흡인법원**: 18일 오후 2시, 장소-교구청 사무국
- 2. **예산 확정회의**: 20일 오전 10시30분, 참석대상-참사회원(인사제정) 수녀연합회 회장단·평협회장단, 장소-교구청 회의실
- 3. **제8기 흡인강좌** ①일시: 1986. 11. 17~11. 21. 매일 오후 7:30~9:30
 ②장소: 가톨릭센터 3층 ③수강료: 3,000원 ④접수: 11월 10일까지 교육구(00041)
 ⑤내용: 행복한 가정(남편과 아내의 역할), 생명의 신비, 인공유산, 빌딩스 걸액판
 찰법, 혼인의 신비(목적과 전례), 가정의학, 부부생활, 가정공동체의 복음화, 혼인의 윤리, 아동심리
- 4. **반회장 연수회**: 3차 18일 오후 2시~19일 오후 6시
 4차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 5. **사제 어머니모임**: 20일 낮 12시30분(점심 제공), 장소-신수당(강덕행선부 모친석)
- 6. **베소라섬서 강**의 안대: "아이로 딸의 부활"(마르 5,21~43)-죽음을 이긴 예수-21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 7. **베소라 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가톨릭센터 3층에서
- 8. **젠 음악회 "어느날 너를 만났을 때"**: 22일 오후 8시, 장소-중앙천주교회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11월호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에는 위령성월에 관한 교리, 이달의 성인, 생활수필, 늦가을의 농사정보 등이 실려 있다.

10만인 성지순례

일	요일	1코스: 전주 숭정이→지명자산	2코스: 여산 순교지→천호성지
		담당신부 시 간	담당신부 시 간
16	일	문규현 신부 오후 1시~4시	김영진신부 낮 12시~4시
23	일	김기곤 신부 오후 1시~4시	김동준 신부 낮 12시~4시

* 가정기도 독서: 시편 87:1~7 요한 11:5~16

잡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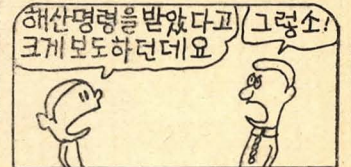
☆ 제5지구 성체현양대회 성황리에 마쳐...오늘, 제2지구에서도-

금년도 교구 사무지침(성체와 가정의 해)에 따라 열린 제5지구(지구장: 문정현 신부) 성체 현양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주(11월 9일) 남원 중앙국민학교에서 열린 이번 성체 현양대회는 지구내 7개 본당(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장제)에서 2,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는데 교구장 박주교님의 주례로 제1부 행사인 미사거행과, 제2부에서는 성체행렬에 이어 성체강복, -이런 순서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교장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다. 특히 남원시내 중심도로를 따라 거행된 행렬의 신에서 경건·염속하고 질서있는 모습을 본 시민들도 과연 천주교 신자들은 다르다는 칭찬이 대단했다고,

이번 성체현양대회를 통해 지구내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체 안에 일치된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지구민 모두가 성체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지구 신부님들은 기뻐했다.

오늘은 제2지구(이리지구) 성체현양대회가 거행된다. 역시 교구 사무지침에 따라 개최되는 제2지구 성체현양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이리 영동동 동북국민학교에서 시작, 시내 중심도로를 따라 성체행렬이 있고 이어서 장인동 본당에서 성체강복이 거행될 예정이다. 성공을 빌며 우리 모두가 일치의 성사인 성체의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들이길 바란다.

요십이 (693) 김병오



어머님 칠순잔치에 초대합니다

어머님을 아시는 분들에게서는 함께 자리해 주셔서 기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후 신부 올림

일시: 11월 23일 11시30분

감사미사

장소: 옥봉 천주교회

간호원 구함

- *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 만19세~20세 이하의 미혼여성
- ※ ①자격증 원본(지참)
- ②이력서 1통(사진첨부)
- ③주민등록등본 1통 구비하여 11월 30일까지 직접 면담바람
- ※ 교우환영 전화 01719 명동피부과 의원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밖오로 서편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 * 후수(회갑)웃감 || 도매상
-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친구류
- * 각종 솜일체
- * 커네티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젠 음악회>

"어느날 너를 만났을 때"

* 일시: 1986. 11. 22(토) 오후 8:00

* 장소: 전주 중앙성당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울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2. 혈제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오늘부터 회의시간을 변경합니다.
3. 학력고사 수험생 특별미사: 19일(수) 저녁 7시
4. 중, 고등부 교사 모집합니다: 본당 학생회 지도에 뜻있는 청년(남·녀)들은 보좌신부님과 상의바랍니다
5. 감사드립니다: 주수감사제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공소 순회미사: 22일 저녁 8시, 신월리공소
7. 금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봉헌-백종엽 부부
8. 차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봉헌-배기창 부부
9. 아파트 꾸리아 간부명단: 단장-정수일, 부단장-김광춘, 서기-황영자, 회계-배영순
□ 지난주 봉헌금: 520,580원 아파트: 196,645원
지난주 선축금: 435,000원 아파트: 527,600원
교무금: 357,000원 아파트: 250,000원
감사제 예물: 1,757,600원 아파트: 1,23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평신도주일: 16일(오늘) 2차현금
2. 삼배(엘리사벳 혈제회): 17일오전 11~오후 4시
3. 반회장 연수회(이수): 11~12일고렐레나·정마리테레사. 15~16일 정운주·유순자·경영자·최정순·이정배·허정애·안정해. 18~19일 김인식·조정숙·신영희·최영숙. 22~23일 고봉림·송영자
4. 예비교사 응시사를 위한 미사: 19일 저녁 7시30분
5. 부녀회: 20일 오전 10시
6. 축영명: 이 세시리아 수녀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10만단 목주기도: 봉헌-79,650단
8. 가정방문: 19일(오후) 태평5반(백모니카) 20일(오후)중앙2반(장세시리아) 21일(오전) 태평8반(김마리아) 반미사 저녁 8시30분
9.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공사 헌금: 14만원-지해룡 10만원-황인화·임봉배·공미순. 5만원-이금순, 3만원-익명, 1만원-김관걸·조인숙·이인월·익명, 3천원-한선애. 일천원-고재만
계-564,000원 누계-28,509,00원
10. 감사: 사제관-웅접실 키펀-정안나, 벽시계-심덕이
11. 축 결혼이 성가대 창립: 회장-정성훈, 부회장-송세란, 총무-박영숙, 지도자-강주호, 반주자-박중화, 성가연습-매주일 오후 6시30분
12. 축 결혼: 11월 23일 12시 신랑-허남오(도민교)군, 신부-이옥배(소피아)양
11. 금주전례: 정운주, 독서-①이기배 ②조성호
봉헌-황인하씨 부부
차주전례: 황만금, 독서-①장기연 ②강주호
봉헌-김수영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8,190원 교무금: 490,60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평신도 주일: 2차현금 있습니다
2. 제대회: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공식미사 후
4. 피절: 전신자 25~27일
전전반오실 분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5. 가정방문: 19일-익암·계월, 20일-마치·수월 21일-내어두·석장
6. 올드레아: 19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15,340원 교무금: 170,4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참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오늘은 평신도의 날: 특별헌금 있습니다
2.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유아세례식: 20일 10시 미사후
4. 성가대 모집: 매주 금요일 7시30분
본당의 청년들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5. 감사: 부제님 미사가방(2만원) 기증-익명
6. 평화동구역 가정방문 및 미사: 대상-평화동 1반(에그린아파트), 일시-20일 목요일 오후 3시
미사는 7시에 1반 회장대(에그린아파트 다동 302호)에서 있으니 반원들의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7.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김한기 ②유용산
봉헌-민병석 부부
평화동: 해설-박병환, 독서-①정형석 ②강수중
봉헌-오상팔
차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봉헌-강기호 부부
평화동: 해설-문치구, 독서-①김화영 ②김나섭
봉헌-고광필 가정
□ 지난주 봉헌금: 본당-295,220원 평화동-116,420원
계-411,640원 교무금: 709,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최 상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범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1. 성화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3.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4. 예비신자 교리반 신설: 노인반(60세 이상)
-화요일 오후 2시 사제관 2층
5. 교리교사회 임원개편: 회장-김윤배(요한)
6. 87년도 사업계획서: 각 신심단체별로 분과위원장을 통해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7. 가정방문 일정: 오전 9시30분~12시·오후 2시~5시
18일~22일-동교동·서교동, 25일~29일-풍남동·남도송동, 12월2일~6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9일~13일-기타
8. 50주년 헌금 신입합니다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오경미, 독서-①배한수 ②임유창
8시 30분: 해설-손미라, 독서-①조풍기 ②손취부
공식미사: 해설-윤귀자, 독서-①이종두 ②탁병탁
□ 지난주 봉헌금: 1,019,370원 교무금: 697,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성당 의자카바: 성모회(참기름 판매)에서
2. 지하성당 오르간: 친진암 성지순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고등부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 19일 오후 7시
4. 켈 음악회: 22일 오후 8시, 중앙성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5. 모임: 오늘-올드레아·성모회
차주-자모회
□ 지난주 봉헌금: 602,531원 교무금: 419,000원